

# 코로나19대출 만기또 연장... '부실폭탄' 우려

### 원금상환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 조치 6개월 더 연장

### 금융권 "최소한 리스크 관리 위해 부분적 이자 상환해야"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키로 하면서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추후 부실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해왔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과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31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해준다.

당장 현 수지만 놓고 보면 가이드라인의 추가 연장이 금융사들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아 보인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3%로 한 달 전보다 0.09%포인트 내렸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0.39%로 5월 말보다 0.13%포인트 내렸고 중소기업 연체율(0.56%)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29%)도 각각 0.30%포인트, 0.08% 떨

어졌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대출 연장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아직 그 여파를 제대로 가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연체율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시중은행들의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일제히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에 이른다. 이중 시중은행의 만기연장 잔액은 51조3180억원, 유예된 이자 잔액은 391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은행들은 이자상환 유예조치까지 연장된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은 그간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자상환 유예 추가

연장과 관련해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 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이자상환 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상환이 유예된 금액이 크지 않다고 부담도 크지 않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자자가 잘 납입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금융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인데, 1년간 최소한의 부실 위험 관리마져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이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공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자마저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한계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유예 조치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결국 부실폭탄을 뒤로 미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1미

만인 기업의 비중은 50.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 돈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2곳 중 1곳 꼴로 불어난다는 뜻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결과적으로 대출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아예 탕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갚아야 하는 이자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금융사 뿐만 아니라 대출자들에게도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들은 이러한 부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선제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국내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용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7.0%(2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린 댓가로 실적은 고무라졌다.

국내은행들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5%(1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기자

## 코로나19에 장마까지...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6개월째 ↓

### 오프라인 매출 2.1% ↓...백화점·대형마트 부진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는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긴 장마까지 더해지면서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액이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11조4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패션·잡화(-6.8%), 서비스·기타(-5.1%) 등 외부 활동 관련 상품 매출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반대로 생

활·가정(17.4%), 식품(6.0%) 등 소비재 품목 매출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2.1% 줄었고, 구매 건수도 7.8% 하락했다. 매출액을 구매 건수로 나눈 구매단가는 6.1% 올랐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과 장마로 오프라인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체별로는 백화점 매출이 2.1% 줄었다. 준대규모점포(SSM)와 대형마트

매출도 각각 11.9%, 5.5% 감소했다. 반면 편의점 매출은 3.7% 늘었다.

백화점은 여성캐주얼(-27.2%), 아동스포츠(-18.3%), 잡화(-17.9%) 등이 부진했다. 그래도 해외유명브랜드(32.5%), 가정용품(27.2%) 매출은 늘었다.

대형마트는 외부 활동 감소로 패션상품·물놀이용품 등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잡화(-29.1%), 스포츠(-24.2%), 의류(-21.2%) 부문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SSM은 장마 등의 영향으로 방문 고객이 15.5% 줄었다.

특히, 복숭아·수박·포도 등 계절과일 판매가 감소하면서 농수축산(-11.9%)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편의점은 우산·제습제 판매가 늘면서 생활용품(9.7%) 매출이 증가했다. 또한 구글 기프트카드 등 편의점 상품권 수요가 늘면서 잡화(8.5%) 부문도 성장세를 보였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3.4% 확대됐다. 소비자들의 비대면 거래 선호로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지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46.0%), 생활·가구(26.3%) 매출이 크게 늘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여행 관련 소비가 줄어들면서 서비스·기타(-16.3%) 품목 매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정승호기자



## 삼성의 야심작 '갤럭시 Z폴드2'

### 내달 1일 공개

삼성전자의 세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폴드2'가 오는 9월 1일 언팩을 통해 베일을 완전히 벗는다.

28일 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 밤 11시(미국 동부시간 오전 10시) '삼성 갤럭시 Z 폴드2 언팩 파트 2' 행사를 온라인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초대장을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초대장에는 삼성전자가 최근 신제품에 적용 중인 대표 색상인 미스틱 브론즈(구릿빛)를 입은 갤럭시 Z폴드2가 열리면서 어두운 속에서 빛을 발산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번 언팩 파트2에서는 '갤럭시 Z폴드2'의 세부 사양과 혁신적인 사용자경험(UX), 출시 일정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온라인 언팩 행사 말미에 갤럭시 폴드의 후속작이자 3번째 폴더블폰인 '갤럭시 Z폴드2'를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사양과 출시 일정, 가격 등을 9월 초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갤럭시 Z 폴드2'는 전작보다 화면이 커지고 두께는 얇아진다. 화면을 펼쳤을 때 7.6인치로 전작보다 0.3인치 늘어났다. 거의 소형 태블릿에 견줄만한 크기다.

특히 메인 화면에 화면 위쪽을 가리던 '노치'가 사라져 한층 깔끔해졌다. 카메라 구멍만 남겨 놓고 전체를 화면으로 채운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절반으로 접었을 때 겉면에 드러나는 커버 디스플레이는 전작(4.6인치)보다 커진 6.2인치다. 접었을 때는 상반기 출시된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 S20'와 같은 크기여서 활용도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약한 플라스틱 재질 대신 초박막강화유리(UTG)를 적용하고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칩셋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120Hz로 향상됐다. 주사율이 높아질수록 화면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볼 수 있어서 고사양의 게임 등을 할 때 유용하다.

갤럭시 Z폴드에서 처음 선보였던 하이더웨이 힌지(경첩)가 갤럭시 Z폴드2에도 적용됐다. 하이더웨이 힌지는 노트북을 여닫을 때처럼 다양한 각도로 화면을 펼쳐 세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 두 개의 캠이 위치한 구조다. 기기를 펴면 경첩이 본체 안으로 접혀 들어가 기기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접거나 펼칠 수 있다.

기기 후면에는 인덕션 모형 안에 카메라 3개가 탑재된다. 카메라는 ▲6400만 화소 망원 ▲1200만 화소 광각 ▲1200만 화소 초광각 렌즈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색상은 미스틱 브론즈와 미스틱 블랙 두 가지로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폴드와 마찬가지로 명품 패션 브랜드인 '토مبر라운'과 협업한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도 공개할 예정이다.

갤럭시 Z 폴드2 가격은 전작과 같은 239만8000원 또는 이보다 약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스

## 프리미엄 라면 '군산 불짬뽕 컵면' 나왔어요

### 최근까지 80만개 이상 판매되는 등 인기



전북 군산원에농협이 군산짬뽕라면에 이어 컵라면으로도 즐길 수 있는 군산불짬뽕컵면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예농협에 따르면 관내 7개 농협과 함께 식품회사를 꾸려 '군산짬뽕라면'을 지난해 12월20일 출시, 최근까지 80만개 이상 판매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라면은 군산대 링크플러스사업단과 군산시농업기술센터를 협력기관으로 지역 특산물인 흰찰쌀보리가 주재료며, 군산 앞바다의 풍성한 해산물을 이용한 수프를 개발했다.

뉴스스